

중대재해 발생 상황 파악·조사 업무가 더욱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6.(수) SBS비즈, “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26건...노동청 조사도 안했다”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*에 의한 사고 상황 전파 내용, 산업안전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산업재해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,

* 중앙부처, 지방정부,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**법정부 통합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**으로, 소방청 등이 수집한 위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파

- 관할 지방관서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- 한편, 장기간 치료 중 사망, 동시 2명 이상 부상재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산재요양·유족보상 정보를 통해서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음
-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, 노동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산재요양·유족보상 정보 등의 확인이 소홀했던 사례를 확인·지적한 것으로,
 - 노동부는 금번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며,
 -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관서의 중대재해 파악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 (044-202-8952)

